

생태돌봄의 관점에서 본 건강불평등

김현미*

초록

이 글은 신자유주의적 발전 모델이 초래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생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돌봄을 정치의 핵심 원리로 재구성하는 '돌봄전환'을 제안한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건강불평등을 통해 계급·젠더·이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체현되며, 이는 생태적 박탈의 결과이다. 본 글은 포스트휴머니즘과 생태적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 환경과 건강의 상호의존성을 밝히고, 생태-돌봄-건강불평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적 재생산의 방향을 모색한다.

주요 용어: 기후위기, 돌봄, 생태위기, 에코페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E-mail: hmkim2@yonsei.ac.kr)

투고일: 2025.12.27./ 수정일: 2026.1.29./ 게재확정일: 2026.1.30.

I. 생태위기와 돌봄전환

이 글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초래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속에서, 돌봄을 정치의 핵심 원리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생태적 관점에서 재사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재생산이란 단순한 출산이나 인구 재생산을 넘어, 인간이 생존하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건강, 안전, 돌봄,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지식이 세대를 넘어 유지·전수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Elson, 1998). 사회적 재생산 모델은 생산 중심의 경제 모델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사회 기획으로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발전해온 개념이다. 사회적 재생산 모델에 따르면 사회는 생산과 경제력, 임금노동을 통해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생명, 생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돌봄의 공급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김현미, 2020). 현대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는 생명과 삶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멸종, 오염 등을 포함한 생태 위기에 의해 심화된다.

인간중심주의와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가 결합한 구조적 위기는 오염과 종 멸종으로 대표되는 생태 위기를 초래하여 인류 전체의 재생산 위기를 낳고 있다. 이 위기는 자본의 필요와 성장에만 중심을 둔 발전주의 모델이 자연과 비인간 존재를 무한한 자원으로 간주해온 역사적 결과이다. 하지만 생태 위기는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불예측적인 환경 재난이나 질병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10년간 기후위기와 재난을 다룬 논문과 자료를 분석한 Gonah et al.(2025)은 폭염·홍수·가뭄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인간 건강에 광범위하고 중층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폭염을 포함한 환경 재해는 사망, 만성질환 악화, 정신건강 악화, 모성과 아동 건강 악화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그 피해는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즉,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 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한 국가 내부에서도 노인, 아동, 여성, 빈곤층, 비공식 노동자, 난민·이주민,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집단 간 건강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Gonah와 동료들은 이러한 불평등이 빈곤 국가나 이미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해온 인구 집단의 적응 역량(adaptive capacity), 즉 자원 접근성, 보건 시스템, 사회적 보호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 이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어온 반면,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개입하여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실천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생태위기와 돌봄전환(care transition) 논의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적 관점을 결합하여 현재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돌봄전환 논의는 임금노동과 총생산을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며, 생산과 재생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돌봄을 사회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이때 제안되는 개념이 ‘돌봄 시민권(caretizenship)’으로, 시민 됨을 생산과 노동, 대의정치의 참여뿐만 아니라 생태와 인간, 그리고 인간 간 돌봄의 관계 속에서 재정의하려는 시도이다(김현미, 2020; 프레이저, 2023; Puig de la Bellacasa, 2017).

이러한 돌봄전환 논의는 오늘날의 생태적 비상사태와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는 인간뿐 아니라 공기, 물, 토양, 비인간 생명체를 포함한 삶의 터전 전체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태를 의미한다(머천트, 2020). 전염병, 기후 재난, 그리고 멸종은 사회적 재생산과 생태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생태 위

기는 곧 건강불평등과 환경 정의의 문제이며, 생태돌봄을 통해서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감지하고 개입할 것인가?

II. 생태적 위기는 어떻게 감지되고 개입되는가? – 포스트휴머니즘 관점

현재의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은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축적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김현미, 2020). 최근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특히 한국 사회의 지배적 담론은 인공지능, 로봇 산업, 생명공학 등으로 대표되는 포스트휴먼 기술공학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이를 경제 발전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은 매우 의미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는 인간/비인간, 정신/물질, 주체/객체와 같은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연결성과 상호영향력을 인식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후위기를 사유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전환적 관점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포스트휴머니즘은 행위자성을 인간에게만 귀속시키는 기존 휴머니즘을 넘어, 인간·비인간·물질·기술이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공동의 행위자로 작동한다는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로지 브라이도티(2015; 2024)가 지적하듯, 다양한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기후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경합하고 있다. 브라이도티는 특히 인간의 기술적 향상을 강조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이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를 기술공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환원주의에 기대며, 결과적으로 인간 특권주의와 불평등을 강

화한다. 더 나아가 거대 자본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신화를 내세워 각종 첨단 과학기술을 제시하고, 동식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생명, 감정과 인지까지도 시장과 기술의 관리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트랜스휴머니즘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흐름은 자본주의의 외연을 한층 더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에 반해 브라이도티는 현재의 위기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접근을 통해 보다 생산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단일하고 자율적인 인간 주체를 전제하는 휴머니즘적 가정을 비판하면서도, 책임과 윤리를 수행하는 주체의 필요성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하나의 자연적 종에 속한 존재이며, 다른 생명과 존재를 지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브라이도티, 2015). 여기서 인간 주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층적인 관계와 소속 속에서 구성되는 다양체로 이해된다. 즉, 차이를 가로질러 연대하고 현실에 기반한 책임을 지는 생태적 존재로 재개념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연을 수동적 자원으로 취급해온 기존 시각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이 몸성과 물질성을 매개로 서로 얽혀 공동으로 구성되고 공동으로 생산되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또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건강과 질병을 개인의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환경, 기술과 제도가 얽힌 관계적 과정으로 재개념화한다. 스테이시 엘리모(2018)의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개념은 독성 물질, 환경 호르몬, 미세먼지, 산업 폐기물 등이 특정한 인간-비인간 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질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이 관점에서 인간의 몸은 닫힌 경계를 지닌 개체가 아니라, 공기, 물, 화학물질, 미생물, 기술 장치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구성되는 열린 장이다. 화학물질 복합과민증, 환경성 암, 산업 현장의 만성질환은 통제 불가능한 물질성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교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해 수많은 질병과 죽음을 목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무작위적으로 분포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한 지역과 계층에 집중된다. 이는 건강을 단지 의료 체계의 문제로 한정하는 접근을 넘어, 생태적 돌봄의 정치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불평등은 생태적 불평등이 몸을 통해 가시화된 결과로 이해된다. 인간의 몸은 생태계와 분리된 자율적 단위가 아니라, 화학물질, 미생물, 공기, 물, 토양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물질적 관계망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생태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생태적 위기가 몸을 매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II. 생태 위기는 곧 돌봄의 위기이며 건강불평등의 구조이다

기상이변,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붕괴로 대표되는 생태 위기는 더 이상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돌봄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회적 위기이다. 생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몸의 조건, 계급, 젠더, 인종, 이주 지위, 노동 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체현된다. 이런 점에서 건강불평등은 생태 위기의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물이 오염될 경우, 비위생적인 물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 질병을 겪는 이들은 대개 물을 길어 오는 역할을 맡는 여성, 어린이, 이주자들이다. 매년 오염된 물로 인해 약 3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2천만~3천만 명이 회선사상충증을 앓으며, 2억 7천만 명이 코끼리 피부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Mesina, 2009). 이러한 전 지구적 수인성 질병 통계를 생

태계의 돌봄 기능이 약화될 때 건강 위험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Greene & Morvant-Roux(2020)의 멕시코 사례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지역 개발 정책의 맥락에서도 반복됨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의 현지 연구는 정부 주도의 빈곤층 주택 개발이 생태계에 대한 돌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오히려 취약 계층을 박탈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사례에서 강은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물, 식량, 위생, 휴식, 치유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탱해온 생태적 돌봄 인프라였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설된 이후 강은 폐수와 독성 물질로 오염되었고, 주민들은 이전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비시장적 생태 공공재를 잃게 되었다. 이는 깨끗한 식수 공급과 식량 제공, 질병 예방, 정서적 안정을 가능하게 하던 생태계의 기능이 붕괴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주민들을 물과 건강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존재로 내몰았다. 생태계 돌봄의 상실은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천식·호흡기 질환·피부 질환과 같은 건강 위험을 누적시키며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임금노동과 부채 의존을 강요했다. 이 사례는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어떻게 계급적 박탈과 건강불평등을 만들어내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주민들이 겪는 건강불평등은 생태적 박탈(ecological dispossession)의 한 형태이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계가 수행해온 돌봄 기능의 붕괴는 도시 주변부 주민들뿐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을 이어가는 농민들의 삶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유기농 여성 소농이자 비아캄페시나 한국 대표인 김정열을 면접해 작성한 정숙정(2024)의 연구는 농민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기후위기와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잘 보여준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뿐 아니라 농민의 몸, 건강, 생계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구체화된다. 사계절과 24절기의 리듬이 무너지

면서 폭염·가뭄·폭우·폭설·늦가을 태풍이 일상화되었고, 김장철에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특히 폭염 속에서 참깨를 수확하다 쓰러지는 사례처럼, 기후위기는 농민의 생명과 노동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동시에 겨울에도 살아남는 해충이 늘어나 병해충 피해가 급증하고, 감염병으로 입원하는 농민이 증가하면서 농사노동 자체가 고위험 노동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발농사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 농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폭염과 병해충 노출은 물론, 전통 잡곡과 토종 작물의 소멸, 먹거리 자급 기반의 붕괴로 이어지며, 기후위기가 곧 농민의 인권과 생존 조건을 침식하는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법은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은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 산업적 농업의 연장선에 가깝고,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부채 부담을 안긴다. 또한 대규모 전력 사용과 화학물질, 양액 중심 재배 방식에 의존하며, 그 폐수와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녹조 현상과 생태계 파괴를 심화시킨다. 나아가 토양과 미생물의 생명력을 배제함으로써 농생태계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소규모 농민이 유지해온 생물다양성과 지역 먹거리 체계를 붕괴시킬 위험도 크다. 결국 스마트팜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오염과 생태적 비용을 외부로 전가하는 기술 중심 대응에 머문다.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기보다 오염을 가리고 산업농을 강화하며 생태적 돌봄을 제거하는 방식에 가깝다.

생태적 돌봄은 돌봄을 인간관계 내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재생산과 생태적 조건을 함께 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폭염·가뭄·홍수는 각각 고립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며 순환하는 생태적 연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연쇄는 보건의료 접근성, 사회적 보호 체계, 재생산 노동, 일상적 돌봄의 조건을 동시에 침식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며, 인간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돌봄의 결핍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생태적 ‘돌봄전환’은 생태계가 수행해온 돌봄을 가시화하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며, 생태계 스스로 자정 능력과 회복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뜻한다. 이는 덜 채굴하고, 덜 오염시키며, 자연에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회복을 위해 시간을 들여 최대한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한다. 생태적 돌봄전환은 단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요청이 아니다. 건강 위험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위험 노출의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전환이기도 하다. 오염을 줄이고, 생태계의 회복력을 복원하며, 생태적 부담을 외부화하지 않는 생산·소비 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곧 누가 병들고, 누가 더 일찍 죽으며, 누가 더 많은 돌봄 부담을 떠안는지를 결정해온 불평등한 조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태적 돌봄은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접근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점에서 생태돌봄 전환은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몸을 매개로 드러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건강정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강을 분리된 영역으로 다루는 한, 돌봄의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유, 공존, 순환, 모든 존재의 돌봄 참여와 같은 생태주의적 돌봄전환 사회의 가치를 사회적 재생산의 운영 원리로 통합해내지 않는다면, 젠더, 계급, 인종, 종 간 불평등과 환경 파괴는 동시적으로 강화된다(김현미, 2020). 돌봄전환은 곧 인간과 비인간 생명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이며 윤리적인 선택이다. 돌봄은 인간 간의 관계를 넘어 종-횡단적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의 회복력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인간 중심적 복지 정책을 넘어, 다른 비인간 생명과 물질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

건강불평등은 생태적 박탈, 돌봄의 탈정치화,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의 불평등한 조직 방식이 교차하며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논의에 생태, 비인간, 물질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효율, 생산성, 과학 기술 만능주의에 의해 희생되는 '그림자 장소'와 차별적 몸의 경험을 드러내는 방법론이 중요해진다. 특히 향후 연구는 기후위기와 오염, 생태적 박탈이 구체적인 몸의 감각, 통증, 피로, 돌봄 부담의 증가로 어떻게 체현되는지를 드러내는 몸성(Mattingly, 2010)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 현장과 생활 공간에서의 환경 노출을 추적하는 물질적 민족지(material ethnography), 돌봄 노동과 건강 손상의 연관성을 밝히는 재생산 노동 연구, 지역 생태계 변화와 주민 건강의 상관성을 장기적으로 기록하는 커뮤니티 기반 참여 연구(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등이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돌봄-생태-건강불평등을 하나의 연속적인 문제로 사유할 때, 생태 위기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 된다.

연구윤리
해당없음.

이해상충선언
본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

사사표기
해당없음.

참고문헌

- 김현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 *젠더와 문화*, 13(2), 41-77.
- 낸시 프레이저. (2023).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장석준 역). 서해문집.
- 로지 브라이도티. (2015). 포스트휴먼(이경란 역). 아카넷(포스트휴먼 총서 3).
- 로지 브라이도티. (2024).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윤조원, 이현재, 박미선 역). 아카넷.
- 스테이시 엘리모. (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윤준, 김종갑 역). 그린비.
- 정숙경. (2024). 여성 농민이 경험하는 기후위기와 인권: 김정열 비아 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인터뷰. *인권연구*, 7(2), 321-331.
- 캐롤 머천트. (2020). 인류세의 인문학: 기후변화 시대에서 지속 가능성의 시대로(우석영 역). 동아사이.
- Elson, Diane. (1998). The Economic, the Political and the Domestic: Businesses, States and Households in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New Political Economy*, 3(2), 189-208.
- Greene, J. C., & Morvant-Roux, S. (2020). Social reproduction, ecological dispossession and dependency. *Development and Change*, 51(6), 1469-1494. <https://doi.org/10.1111/dech.12617>
- Gonah, L., Mabunda, S. A., Faleni, M., & Nomatshila, S. C. (2025). The confluence of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human health and health inequalities: A scoping review. *Journal of Global Health Economics and Policy*, 5, e2025015. <https://doi.org/10.52872/001c.137872>
- Mattingly, C. (2010). *The Paradox of Hope: Journeys through a Clinical Border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esina, R. M. L. (2009). A take on ecofeminism: Putting an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the environment. *Ateneo Law Journal*, 53(4), 127-129.
- Puig de la Bellacasa, M. (2017). *Matters of Care: Speculative Ethics in More than Human World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eframing Health Inequalities from an Ecological Care Perspective

Hyun Mee Kim*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generated by neoliberal developme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and argues for a “care transition” that repositions care as a core political principl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produce unequal health outcomes that are differentially embodied along lines of class, gender, and migratory status, constituting forms of ecological dispossession. Drawing on feminist political economy, posthumanist theory, and ecological care, the article conceptualizes health inequalities as outcomes of entangled social and ecological crises. It highlights the interdependence of human and non-human life and calls for a reorganization of social reproduction that integrates ecological sustainability, care justice, and democratic responsibility.

Keywords: Climate Crisis, Care, Ecological Crisis, Ecofeminism, Posthumanism

*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hmkim2@yonsei.ac.kr)